종교는 폐기하고 신앙은 개혁하자

(역대하 2:1~18)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 솔로몬이 이에 짐꾼 칠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팔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삼천 육백 명을 뽑고
3.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종교는 폐기하고 신앙은 개혁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종교는 폐기하고 신앙은 개혁하자'

예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루터나 캘빈이 직접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의도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예상해봅니다. 루터나 캘빈의 개혁은 신앙개혁이라야 복음적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문화의 한 양식에 불과한 종교의 틀에 갇힌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교와 신앙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기독교 스스로 종교의 자의식을 가지며 맥없이 망해가는 가장 큰 이유들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종교를 뜻한다면 기독교라는 단어는 차라리 없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 신앙이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종교의 틀에 갇힐 때에 기독교라는 말은 백해무익한 단어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루터와 캘빈이 원했던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이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들의 신앙개혁이 일으킨 파장을 바깥에서 조망할 때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이 무엇이냐는 논리적인 정의로부터 따지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종교를 완전히 폐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었던 구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도 없습니다. 또한 최첨단 과학시대와 이성이라는 이름하에 종교를 미개한 자들의 정신활동으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는 살아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소망교회는 정치 일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 시대에 유효한 것으로 증거 하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운 근본을 보면 종교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쥐고 독재정치로 나라를 지배할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으면 정말 허접한 영성의 소유자인 최태민 같은 자를 측근에 두었던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동안에 한 민족에게서 이 종교가 사라졌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통치시대와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 시대에 종교가 사라진 구멍이 나타났던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땅에서 종교를 폐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와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선택사항이지만 신앙은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학자들은 종교와 신앙을 일체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고,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집니다. 어떤 무신론자나 반종교인도 신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단계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현재의 레바논 지역인데 여기에서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가 나왔었습니다. 다윗도 궁전을 지을 때에 두로에서 백향목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백향목과 금, 은과 직조에 능한 기술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라고 하는데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로 왕 후람에게 조력을 요청할 때에 이런 구체적인 성전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로 왕은 오히려 '솔로몬! 누가 물어 봤나? 이유는 됐으니 원하는 물자를 말해보시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두로 왕 후람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스무 살에 왕이 되어 첫 번째 과제인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로잡혀서 성전 건축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 후람 왕에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사로잡혀 있었고 성전 건축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분향단과 진설병 떡 상과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기 때와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본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으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을 놓는 떡 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등대가 있고, 성전 입구 앞쪽에는 번제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 건축과 성전 활용에 사로잡혔던 솔로몬의 마음속에 혁명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폐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우뚝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1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분향할 따름이니이다'라고 하는데 이

소름끼치는 말이 스무 살짜리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라는 말대로 성전을 짓되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한 집으로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종교와의 차별성이 생겨납니다.
‘종교’란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의 틀 안에 신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잘 아는 상태에서 신을 들여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한 마디로 신을 취직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전은 우리의 정해진 삶의 틀에 청빙해서 모셔온 신이 거하는 사택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헌물은 취직한 신이 받는 연봉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신을 정해진 삶의 틀 안으로 청빙하는 신의 사택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궤와 분향단과 떡 상과 등대와 번제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가 세운 회막의 구조가 곧 마음의 구조임을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회막의 지성소의 모양은 마음의 지성소를 겉으로 표현해 낸 것이고, 분향단과 떡 상과 등대가 있는 성소는 마음에서 만족과 기쁨과 분별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이름을 담게 됩니다. 해당되는 이름을 담게 되면 성소의 분향단과 떡 상과 등대가 있는 부분으로 나갑니다. 지성소가 담고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 분향단이 뜻하는바 추구하게 되고, 떡 상이 뜻하는바 그로 인해 만족하려고 합니다. 또한 등대가 뜻하는바 지성소에 담고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으로 여기고 얻을 수 없는 것은 나쁜 것으로 판단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는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나 권력의 이름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화나 평등 같은 추상적 가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과정 중의 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신을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사택을 주어서 성전을 만들고 그 신에게 헌물을 하면서 연봉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 권력 평화 평등 등의 세상적인 가치를 담고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분향단의 기도가 뜻하는바 추구하는 과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게 하는 것이 성전의 존재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적인 가치의 이름을 담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삶의 틀 안에서 신을 청빙해서 일어나는 정신 활동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영성은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라이벌은 알라신이나 불상이나 인도의 시바신이나 일본의 육백만 신들이 아니라,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는 돈 권력 형통 자식 배우자 땅 집 등의 이 세상 가치들입니다.

만약에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았다면 그 돈이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신앙이 성립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불상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불교나 기독교가 아니라 돈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가난은 죄라고 말하며 돈을 추구했다면 불상 앞에서 돈을 추구하는 불교 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하는 것은 신이 아닌 돈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마음의 지성소에 담을 때에 그것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한 추구의 과정에서 신을 만들어 청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준 영성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게 하시는 요청이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목성에 착륙할 수 있는 우주탐사선을 만드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최첨단의 삶을 사는 과학자의 신은 우주탐사선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져서 추구하고 있는 대상이 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신앙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주탐사선이 왜 기쁨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어야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의 틀에서 복음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복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는 엄연히 세상의 가치를 잡고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입으로 외칠 뿐인데 이것을 구분한다면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종교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설한 것인데 혁명적이고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분향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전을 보면서 지성소의 구조와 성소의 구조와 번제

단을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의 이름을 담을 때마다 죽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향단에서 분향할 따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를 추구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 뿐이고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신앙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신으로 믿느냐는 것이지요. 신은 곧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졌을 뿐이지 신앙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무식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는 폐기되어야 하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개혁은 신앙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기독교가 복음을 담지한 단체로서 종교의 굴레를 완전히 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